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20.(수) 13:30  
(지면) 2025. 5. 21.(목) 조간

## 행정안전부-대한상공회의소, 지역과 기업을 잇는 상시협력체계 가동

- 5월 20일, 대한상의 ERT행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공표 및 기업 참여 홍보
-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공동 협업과제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5일(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 간 체결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수)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 신기업가정신협의회) Member’s Day 행사에서 공표하여 본격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ERT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 모임인 ‘대한상의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리더스클럽 소속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으로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계 가동

행정안전부와 대한상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며, 다음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상시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상의는 각각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업 수요를 모으고, 지역과 기업의 자원을 연결하여 지역 내 협업사업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기업과 연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아이디어 공모전(9월 예정)을 함께 개최하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사회공헌 실행의지를 연결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 모델을 찾아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며, 청년이 지역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과

협업 가능한 기업을 매칭하고 관련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 단순한 제안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기업과 함께 지역을 바꾼다

이번 협약은 그간 행정안전부, 대한상의 양 기관이 쌓아온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상의는 2025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개최를 비롯하여 대한상의가 주최한 사회적가치페스타에 행정안전부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특히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단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올해 실제 협업사업으로 발전시켜, 기아와 협력한 식품사막화 해결을 위한 신선식품 배송사업 등 민관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산물, 관광자원 등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대한상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등 상시협력체계를 통해 민관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기존 협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중앙부처, 기업, 지방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적 협력 창구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상을 비롯한 민간과 협력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박중근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정성엽 (044-205-3432)



**참고**

**행정안전부-대한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사진(5.15.)**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